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정명석... 또 성폭행 혐의

2009년 法 “종교 지도자 이용 큰 잘못” 징역 10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정씨 2018년 출소해 재차 성폭행 혐의 재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정씨는 앞서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지만, 최근 또 다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합의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 달 13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총 1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같은 수련원 등에서 호주 국적 여신도인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이들 2명의 고발장을 지난해 3월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 여성 신도 3명의 고소장도 추가로 접수한 상황이다.

◆검찰·정씨 측, ‘세뇌 상태에서 범행’ 여부 놓고 진실공방

정씨를 기소한 검찰은 정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부르라며 세뇌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측은 지난달 13일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세뇌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설교한 일이 없고,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적도 없으며, 그런 행위를 정당화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명시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교인들이 세뇌돼 판단력이 상실한 뒤 폭두각시가 됐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는 공사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에 ‘피고인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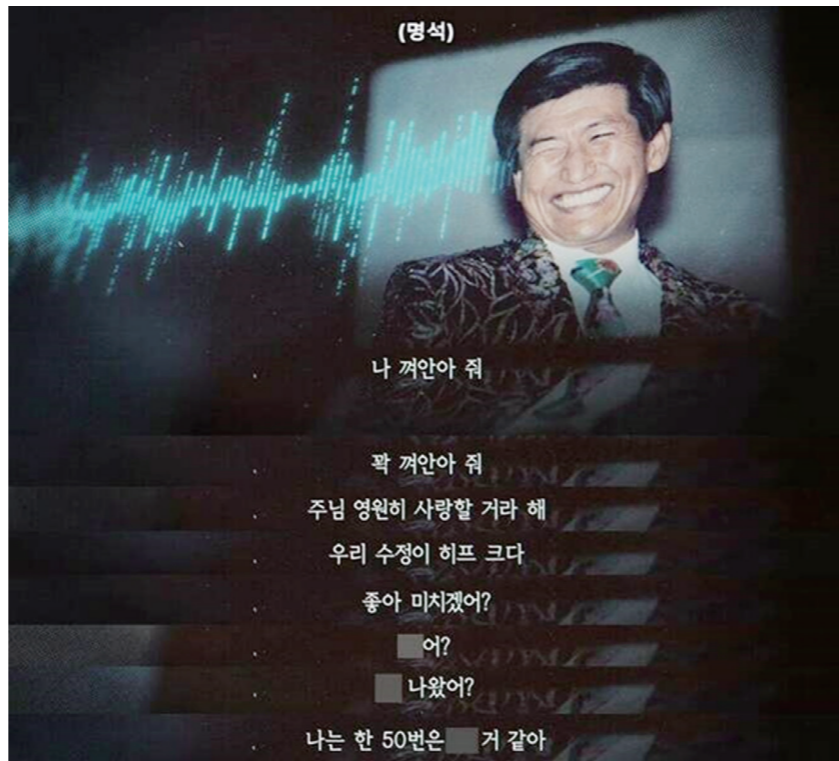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경우 원본 파일이 아니라서 증거 능력이 없으며, 범행이 이뤄진 장소의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이뤄졌던 장소인 수련원을 경찰과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현장검증을 마쳤고, 사진과 영상 등 (증거) 충분히 있다”며 “제출된 증거에 대해 부동의을 하고서 추가로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향후 추가 증인신문 등 공판 절차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징역 10년 만기 출소 후 또 성폭행 혐의 재판

정씨의 성폭행 혐의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씨는 지난 2009년에



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8년 2월에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오르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2009년 2월 정씨의 강간 및 준강간, 강제치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징역 4년에서 형이 대폭 가중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여신도들이 제기한 준강제추행 혐의 및 강간치상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여신도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증언 등으로 인정되고, 그가 당시 정씨의 신체접촉을 종교적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심의 이 부분 무죄 판결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이 종교적 지도자인 점을 이용해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춰 피해정도도 극심한 것으로 보인

(명석)
나 껴안아 줘
꼭 껴안아 줘
주님 영원히 사랑할 거라 해
우리 수명이 허프 크다
좋아 마쳐겠어?
어?
나왔어?
나는 한 50번은 거 같아

다”고 판시했다.

◆23년 전 처음 알려진 ‘종교집단 성 파문’

JMS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집단이다.

JMS 파문은 2000년 들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종교집단 성 파문’ 등 언론 보도에 이어 탈퇴한 신도들의 신고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정씨는 2001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병을 고쳐준다며 한국인 여신도 5명 등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2007년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8년 2월 국내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2008년 1월 JMS를 탈퇴한 여신도 2명이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틀립 ‘활짝’ 절기상 경칩인 6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라이브 나비체험관에서 직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전달할 틀립을 살펴보고 있다.

“왜 코골아!” 요양병원 환자 목졸라 살해

“코를 골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를 압박병대로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청은 살인 혐의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께 전북 정읍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들어 있던 B(80)씨를 압박병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요양병원에 입원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로또 2등 103장 당첨에 ‘조작설’

기재부, “시스템상 추첨 조작 불가능”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 복권판매소에서 2등 당첨 로또복권 103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제1057회차 2등 다수 당첨은 선호 번호가 우연히 추정된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6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1057회 로또 추첨 결과,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이 무려 664장 나왔다. 그 가운데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로 동일한 판매점이다. 당첨금은 모두 7억1027만5640원에 달한다. 보통 매 회차 2등 당첨 건수가 100건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한 판매점에서만 한 회차 2등 전체에 달하는 당첨 건수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추첨기를 조작하거나 녹화방송을 하는 게 아니냐’, ‘복권발매단말기와 시스템 등을 조작해 당첨복권을 만드는 게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토요일 20:30~40)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하여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복권 추첨기 및 추첨볼은 경찰관 임의하에 봉인작업 및 봉인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

일 경찰관 임의하에 봉인검사, 봉인해제 등을 진행한다”며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 판매점에서 2등 당첨 건수가 쏟아진 데 대해서도 조작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판매점의 복권발매단말기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돼 실물복권 인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차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복권의 번호 정보는 복권발매 메인 시스템,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 I 및 감사시스템 II에 실시간으로 전송기록되고, 회차마감과 동시에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를 관리한다.

조작을 위해서는 추첨방송과 동시에 독립된 4개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서 자료를 조작하고, 인쇄가 불가능한 복권발매기에서 실물복권을 인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조작을 위해서는 추첨방송 즉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인쇄 불능 상태의 복권발매기에서 실물복권을 인쇄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마감과 동시에 확정된 4개 시스템의 복권정보, 판매 마감 보고서 및 오후 8시30분 추첨된 당첨정보를 확인하는 추첨보고서까지 조작해야 되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완도해경,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수해경, 사고 예방 위한 어선 설비 등 취약 분야 안전 점검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와 고흥지역 취약 항포구를 방문하여 어선 사고 예방 긴급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소방, 임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에 총력

담양소방서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늘어나는 임야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소방, ‘들불 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화순소방서는 해방기와 봄철 농민기를 앞두고 들불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양경찰,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드림팀 활동 펼쳐

광양경찰서는 지난 2일 광양시 광양노인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참여한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보호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에너지기술연구원 방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나주 소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축 기념식에 이영 장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